

2026
01.30

주간 제 459 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china.org

CONTENTS

WEEKLY 뉴스

중국 AI 기업 6,200 곳 돌파...산업 생태계 '내실 강화'로 전환	1
머스크, 다보스서 AI 발전 속도 진단 "인간 지능 추월 임박"	2
후룬연구원 <2025 후룬 중국 AI 50 대 기업 순위> 발표	3

CHINA 창업

[산업분석] 中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	8
[산업분석] 화웨이, 2026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 대 트렌드 발표	10
[기업분석] 리웨이커 AI 안경: 사용자의 '제 2 의 두뇌'로 진화	14
[정책분석] 중국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 발표	18

KIC 뉴스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한중 신에너지차 협력의 새로운 좌표	25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 대 도시군』 발간	27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29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0
------------------	----

WEEKLY 뉴스



중국 AI 기업 6,200 곳 돌파...산업 생태계 '내실 강화'로 전환

1

머스크, 다보스서 AI 발전 속도 진단 "인간 지능 추월 임박"

2

후룬연구원 <2025 후룬 중국 AI 50 대 기업 순위> 발표

3



중국 AI 기업 6,200 곳 돌파...산업 생태계 '내실 강화'로 전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AI 기업 수가 6,200 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월 기준 4,880 곳이었었던 기업 수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이 가파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AI 기업 수는 6,200 곳을 넘어서며, 2025년 3월 기준 4,880 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 AI 산업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내실 강화'를 중시하는 질적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산업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25년 기준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최근 4년 사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전 세계 AI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의 비중은 약 15%에 달한다. 특히 대형 AI 모델 분야에서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대형 모델 3,755 개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된 모델은 1,509 개로, 국가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기업 구조 측면에서 다원화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내 AI 상장 기업은 300 곳을 넘어섰으며, 이들 기업의 관련 매출은 전체 산업 규모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대형 모델과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71 곳에 이른다. 아울러 선도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초기 스타트업이 대거 등장하는 선순환 발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AI 기술의 적용 범위가 단순한 '대화형 서비스'를 넘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항저우(杭州)에서 공개된 'AI 비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전환 없이도 여행 일정 수립이나 행정 서비스 처리 등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AI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 깊이 통합되고, 시스템 간 연계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AI 대형 모델은 금융과 의료, 제조, 교통, 교육 등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신규 설립된 AI 기업 가운데 약 29%가 대형 모델과 연관돼 있을 정도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덴즈(华电智)' 대형 모델이 수력, 풍력, 태양광의 연계 운영을 최적화해, 계단식 수력 자원의 활용률을 5.8%에서 10.8%로 끌어올렸다. 제조업에서는 대형 모델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설비의 충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대형 모델 기반의 스마트 육종 플랫폼은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의 육종 기간을 기존 8~10 년에서 3~5 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신품종 개발 효율은 물론, 기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 AI 기업의 지역별 산업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포브스 선정 50대 중국 AI 테크 기업'에 따르면, 주요 기업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항저우(杭州) 등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중서부 지역의 추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한(武汉)과 청두(成都)의 기업들 역시 동 포브스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쓰촨(四川)의 경우 2024년 AI 산업 매출이 1,300억 위안을 넘어서며 새로운 산업 집적지로 부상했다.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발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베이징은 연구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상하이는 산업 적용 역량이 두드러진다. 광둥은 스마트 제조 등 응용 분야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AI 산업은 '단일 최고 성능 모델'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실제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응용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들은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및 다양한 규모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 모델이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Qwen, DeepSeek 등 중국산 대형 모델이 잇따라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성능 면에서도 글로벌 최상위 폐쇄형 모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의 80% 이상이 오픈소스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용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대형 모델의 일평균 토큰 소모량은 10조 2천억 개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하반기 대비 363% 급증한 수치이다. (출처: 리우리우칸스제이)

머스크, 다보스서 AI 발전 속도 진단 "인간 지능 추월 임박"

1월 2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xAI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약 30 분간 대담을 진행했다.

머스크는 AI 발전이 거대한 물결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2026~2027년 말에는 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5년 이내에 인류 전체의 집단지능을 넘어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물리 세계의 AI' 즉, AI와 로봇틱스의 결합을 미래 기술 변화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해당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말에는 보다 복잡한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판매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로봇 수가 인구를 넘어설 가능성도 언급하며, 위험한 작업이나 가사, 돌봄 등 반복적인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물질적 풍요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머스크는 AI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에너지 공급과 연산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미국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에너지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을 독려하면서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Robotaxi)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미국 내 서비스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다보스 포럼 첫 참석은 글로벌 기술 논의에서 머스크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향후 5~10년간 기술 발전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도 함께 강조했다. (출처: 소후망)

후룬연구원 <2025 후룬 중국 AI 50대 기업 순위> 발표

후룬연구원(胡润研究院)은 지난 1월 19일 <2025 후룬 중국 AI 50대 기업 순위(2025 胡润中国人工智能企业 50 强)>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주력 사업이 AI 연산 인프라 또는 알고리즘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선정 기준 기업 가치는 95억 위안이다. 상위 50개 기업의 평균 기업 가치는 5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배 늘었고, 이 가운데 5개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베이징이 19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캄브리콘(Cambricon, 寒武纪), 문샷 AI(MoonshotAI, 月之暗面) 등이 순위에 포함됐다. 상하이 1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고, 메타 X (MetaX, 沐曦)와 센스타임(SenseTime, 商汤) 등이 포함됐다. 기업 전체의 80% 이상이 1선 도시 소재 기업으로, 대도시 중심의 산업 집중도가 두드러졌다.

후룬연구원은 AI가 인간의 역량을 넓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감성, 사고, 시각, 청각, 작업 수행, 행동 능력 6가지 역량으로 구체화된다고 설명했다.

도표 1. AI의 핵심 역량

구분	분야	대표기업
감성	컴퓨팅 성능	캠브리콘(寒武纪), 모어스레드(摩尔线程), 메타 X(沐曦)
사고	데이터 분석 및 의사 결정	징타이커지(晶泰科技), MiningLamp Technology(明略科技), 4Paradigm(第四范式) 등
시각	머신 비전	센스타임(商汤科技), 오비중광(奥比中光), 허허신시(合合信息)
청각	지능형 음성	커다싌페이(科大讯飞), 터얼스(拓尔思), 윈즈성(云知声) 등
작업 수행	AIGC	문샷 AI(月之暗面, Kimi), 즈푸화장(智谱华章), 시위지즈(稀宇极智, Minimax)
행동 능력	자율 주행	디지자울주행(滴滴自动驾驶), 포니.ai(小马智行), 위라이드(文远知行)

후룬연구원은 중국이 'AI 활용 대국'에서 'AI 혁신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6월 기준 중국의 생성형 AI 이용자 수는 5억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과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자산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신 <후룬 100대 부자 순위>에서 AI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가 비중은 약 9%를 차지했다. 캠브리콘의 천텐스(陈天石) 회장은 자산이 전년 대비 약 1,500억 위안 증가해 20위에 이름을 올렸고, 록칩(Rockchip, 瑞芯微)의 리민(励民) 회장 역시 자산이 300억 위안 이상 늘어났다. 키미(Kimi)의 창업자인 32세 양즈린(杨植麟) 대표는 자산 73억 위안으로 순위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AI 분야는 자본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3대 증시에 AI 관련 종목이 1,200개 이상 상장돼 있지만, 실제로 AI를 주력 사업으로 하면서 기업 가치가 95억 위안을 넘는 기업은 31곳에 그친다고 후룬연구원은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중국 주요 연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크게 웃돈다. 캠브리콘, 모어스레드(Moore Threads, 摩尔线程), 메타X 세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약 1조 2천억 위안으로, 엔비디아의 약 4% 수준에 머문다. 다만 중국의 연산 인프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5년 내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상위 AI 기업들은 소비자 전자제품과 신에너지차 등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매출 구조는 여전히 내수 비중이 높고, 해외 사업은

시험 운영이나 시범 프로젝트, 기술 수출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베리실리콘(Ve ri Silicon, 芯原股份)은 전체 매출의 41%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으며, 포니.ai(Pony.ai, 小马智行)와 위라이드(WeRide, 文远知行)는 해외 테스트를 통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후룬연구원은 현재 AI 산업에 시장 과열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OpenAI의 이용자가 8억 명을 넘었지만, 유료 이용자 비율은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은 AI 투자가 2030년 이전에 연 10% 수익률을 내려면 연간 약 6,500억 달러의 매출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29년 글로벌 AI 시장 기회 전망 보고서(2029年全球AI市场机遇预测报告)>에 따르면, 2025년 미국과 중국 AI 시장 규모는 각각 410억 달러와 2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기대 수익과 실제 시장 규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후룬연구원은 단기적인 시장 과열 우려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실제 적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AI 역시 인터넷과 같이 자본의 개념을 넘어 점차 사회 전반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기업이 제외됐다. 체화지능 분야 기업(UBTECH, DJI), AI가 주력 사업이 아닌 기업(바이트댄스의 대형 모델 사업), 그리고 상용화 수준이 아직 낮은 오픈소스 연구 중심 기업(딥시크) 등이다. (출처: 두창)

도표 2. 2025 후룬 중국 AI 50대 기업 순위

순위	기업	가치 (억 위안)	분야	제품	소재지
1	캠브리콘	6,300	컴퓨팅 하드웨어	AI 칩	베이징
2	모어스레드	3,100	컴퓨팅 하드웨어	GPU	베이징
3	메타 X	2,500	컴퓨팅 하드웨어	GPU	상하이
4	커다쉴페이	1,300	음성 인식	음성 인식/자연어 처리	안후이 허페이
5	Horizon Robotics	1,200	컴퓨팅 하드웨어	자율 주행 칩	베이징
6	시위지즈	960	콘텐츠 생성	AIGC 대형 모델	상하이
7	센스타임	900	시각 인식	시각 인식 및 AIGC	상하이
8	베리실리콘	890	컴퓨팅 하드웨어	IP 모듈 라이선싱/설계	상하이
9	록칩	790	컴퓨팅 하드웨어	AI 응용 프로세서 칩	푸젠 푸저우
10	비렌커지	730	컴퓨팅 하드웨어	GPU	상하이
11	조푸화장	630	콘텐츠 생성	AIGC 대형 모델	베이징
12	포니.ai	52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광둥 광저우
13	징타이커지	490	데이터 분석 결정	AI 기반 신약 개발	광둥 선전

14	텐수즈신	400	컴퓨팅 하드웨어	GPU	상하이
TOP 20	디디자울 주 행	250-40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상하이
TOP 20	오비중광	250-400	시각 인식	3D 시각 인식	광둥 선전
TOP 20	허허신시	250-400	시각 인식	텍스트 및 이미지 인식	상하이
TOP 20	문샷 AI	250-400	콘텐츠 생성	AIGC 대형 모델	베이징
TOP 20	원텐리페	250-400	시각 인식	시각 AI 및 지능형 인식	광둥 선전
TOP 20	싱천커지	250-400	컴퓨팅 하드웨어	AI SoC 및 솔루션	푸젠 샤먼
TOP 30	MiningLamp Technology	200-250	데이터 분석 결정	기업 데이터 기반 결정	베이징
TOP 30	Momenta	200-2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베이징
TOP 30	터스렌커지	200-250	데이터 분석 결정	AIoT 스마트 시티	베이징
TOP 30	잉시즈닝	200-250	데이터 분석 결정	AI 기반 신약 개발	상하이
TOP 30	위라이드	200-2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광둥 광저우
TOP 30	4Paradigm	200-250	데이터 분석 결정	기업 데이터 기반 결정	베이징
TOP 30	홍란커지	200-250	시각 인식	컴퓨터 비전	저장 항저우
TOP 30	수이위안커지	200-250	컴퓨팅 하드웨어	AI 가속기 카드	상하이
TOP 30	윈즈성	200-250	음성 인식	음성 인식 및 상호 작용	베이징
TOP 30	광스커지	200-250	시각 인식	컴퓨터 비전	베이징
TOP 40	바이친즈닝	150-200	콘텐츠 생성	AIGC 대형 모델	베이징
TOP 40	디푸커지	150-200	데이터 분석 결정	기업 AI 기반 의사 결정 및 운영	베이징
TOP 40	터얼스	150-200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베이징
TOP 40	중관춘커진	150-200	데이터 분석 결정	대규모 금융 수직 모델	베이징
TOP 40	원충커지	150-200	시각 인식	이미지/얼굴 인식	광둥 광저우
TOP 40	지에외싱천	150-200	콘텐츠 생성	AIGC 대형 모델	상하이
TOP 40	완싱커지	150-200	콘텐츠 생성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광둥 선전
TOP 40	량화파이	150-200	데이터 분석 결정	AI 기반 소비자 운영 의사 결정	베이징
TOP 40	쿤룬신커지	150-200	컴퓨팅 하드웨어	AI 칩	베이징
TOP 40	지아두커지	150-200	데이터 분석 결정	교통 AIoT	광둥 광저우
TOP 50	시스치	95-1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베이징
TOP 50	헤이즈마즈닝	95-150	컴퓨팅 하드웨어	자율 주행 칩	후베이 우한
TOP 50	잉처커지	95-1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상하이
TOP 50	메이카	95-150	데이터 분석 결정	AI 연구 및 AI 제조	장쑤 쑤저우
TOP 50	위안룽치싱	95-1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광둥 선전
TOP 50	렌잉즈닝	95-150	시각 인식	AI 기반 의료 영상	상하이
TOP 50	한보반도체	95-150	컴퓨팅 하드웨어	AI 추론 전용 칩	상하이
TOP 50	샤오빙	95-150	콘텐츠 생성	AI 챗봇	베이징
TOP 50	위안샹	95-150	콘텐츠 생성	AI 이미지	광둥 선전
TOP 50	지우스즈닝	95-150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기술	장쑤 쑤저우
TOP 50	아이신위안지	95-150	컴퓨팅 하드웨어	AI SoC 칩	저장 닝보
TOP 50	통둔커지	95-150	데이터 분석 결정	기업 데이터 기반 결정	저장 항저우

참고자료

- ◆ 리우리우칸스제이(六六看世界). 6,200 곳 돌파, 중국 AI 산업 '내실 강화' 단계 진입
<https://baijiahao.baidu.com/s?id=1854472103141476419&wfr=spider&for=pc>
- ◆ 소후망(搜狐网). 머스크 디보스 첫 등장 "AI 초지능 내년 현실화 가능성 로봇 시대 본격화"
https://it.sohu.com/a/979007558_329768
- ◆ 두창(读创). 중국 인공지능 지도! 후룬 중국 AI 50대 기업 순위 발표
<https://baijiahao.baidu.com/s?id=1854729251954100252&wfr=spider&for=pc>

CHINA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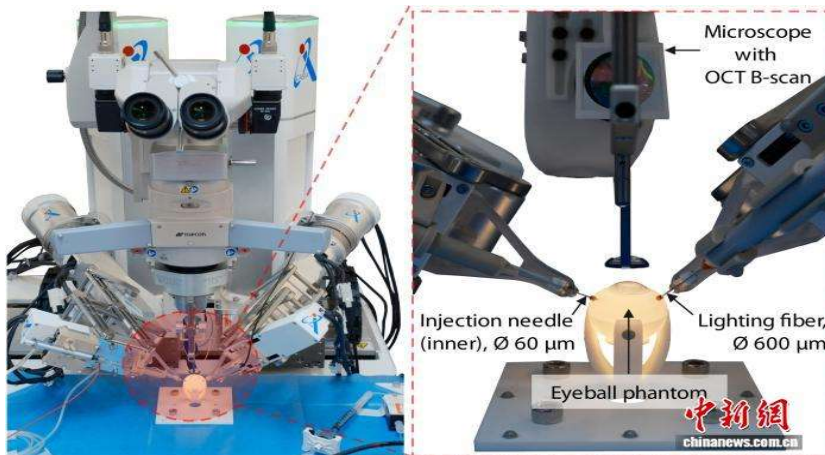


[산업분석] 中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	8
[산업분석] 화웨이, 2026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 대 트렌드 발표	10
[기업분석] 리웨이커 AI 안경: 사용자의 '제 2 의 두뇌'로 진화	14
[정책분석] 중국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 발표	18



[산업분석] 中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는 1월 19일, 안구 내부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 초미세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로봇 시스템은 안구 내부에서 망막하 및 혈관 내 약물 주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안구 내 주사의 정확도와 안전성, 시술 일관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의인성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과 의사가 수술 계획 수립과 감독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科学·机器人)>에 게재됐다.

전 세계적으로 시력 저하 또는 실명에 해당하는 인구는 이미 22억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안구 내부는 구조가 매우 정밀하고 수술 가능 공간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기존 안과 수술은 의료진의 숙련도와 안정성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번 자율 로봇 시스템은 지능적이고 정밀한 제어를 통해 수술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의사의 숙련도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안구 내 질환 치료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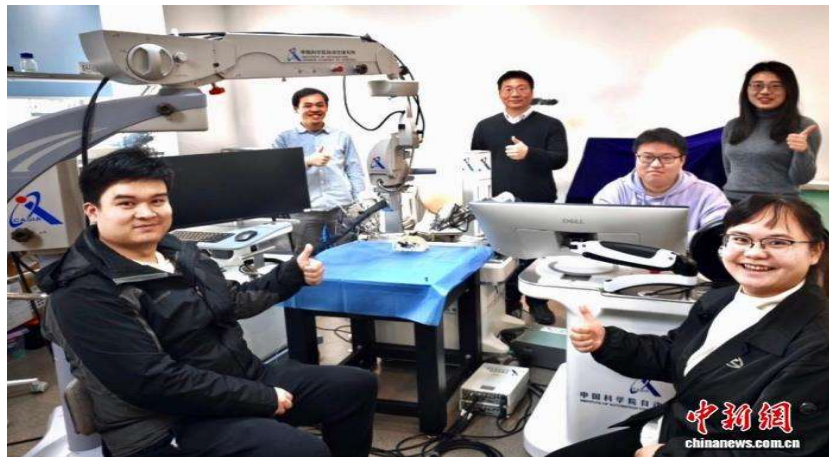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자율형 초미세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며, 수술 중 3차원 공간 인지부터 다중 스케일 정밀 위치 인식, 궤적 이동의 정밀 제어에 이르는 핵심 알고리즘 모듈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원 공간 인지 분야에서는 다중 시점 공간 융합 방식을 도입해, 다중 모달 안구 내 영상에서 발생하는 영상 이질성과 동적 환경에서의 위치 오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수술 중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안구 내부 전체 3차원 지도를 구축하고, 안구 내부 영역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 위치 인식 분야에서는 기준 가중치 기반의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 기법을 도입해, 센서별 탐지 범위와 오차 크기, 샘플링 주파수의 차이를 보정했다. 그 결과 로봇 수술 기구의 끝단을 안구 내부에서 거시적 위치부터 미세한 위치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궤적 이동 제어 측면에서는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한 목표 최적화 기법을 통해 로봇 말단 구동기의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계획했다. 여기에 의료진의 감독 하에서 힘, 위치, 영상 정보를 결합한 혼합 제어 방식을 더해, 수술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안구 모형과 적출한 돼지 안구, 생체 동물 안구를 대상으로 한 망막하 및 혈관 주사 실험에서 해당 로봇 시스템은 모두 100%의 주사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진의 수기 수술 및 의료진 주도형 로봇 수술과 비교했을 때, 평균 위치 오차를 각각 79.87%와 54.61% 줄인 수치로, 더 높은 안전성과 정밀도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안구 내 수술 자율화의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율 로봇의 초미세 수술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향후 안과 수술 치료의 지능화와 정밀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 의료나 극한 환경 등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준다.

참고자료

- ◆ 신라망(新浪网). 중국 연구팀 자율형 초미세 안과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 성공,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을 완료
<https://cj.sina.com.cn/articles/view/1784473157/6a5ce64502003etzy1>

[산업분석] 화웨이, 2026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대 트렌드 발표

화웨이(华为)는 1월 16일 '전 도로망을 아우르는 고품질 충전 인프라'를 주제로 2026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대 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왕즈우(王志武) 화웨이 스마트 충전 네트워크 부문 총재는 산업과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2026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왕 총재는 "충전 네트워크 산업이 아직 단계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으며, 특히 "대형 화물차 물류의 전동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교통 및 에너지 혁신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용차 활용 분야가 직류(DC) 충전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충전 네트워크 산업은 향후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도전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렌드 1: 고품질 발전

승용차에서 상용차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은 초고속 충전 인프라의 필수 요소가 됐으며, 이는 다양한 차종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충전 설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주도하고 있다. 고품질 발전은 통합 계획, 표준, 감독, 운영·유지보수(O&M)를 기반으로 '초고속 충전 도시'에서 '메가와트 충전 도시'로 확장되며, 업계 파트너가 고품질을 고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트렌드 2: 전면적인 초고속 충전

과거에는 프리미엄 사양의 필수 품목이었던 초고속 충전 차량 모델이 대중화될 전망이다. 3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와 높은 충·방전율(C-rate)을 가진 구동 배터리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초고속 충전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와트급 충전을 지원하는 상용차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트렌드 3: 메가와트급 물류 전동화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연료에서 전기로의(fuel-to-electricity)' 전환은 대형 화물차(HGV)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체 시나리오로 빠르게 확장시킬 것이다. 구동 배터리 비용 절감과 메가와트 충전 기술 혁신은 메가와트급 물류 전동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트렌드 4: 100MW 급 충전소

물류 전동화 흐름 속에서 100MW 급 충전소는 고처리량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술 경쟁력, 경쟁력 있는 전력 요금, 확장 가능한 구축 역량 등이 결합되면 강력한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하고, 충전소 투자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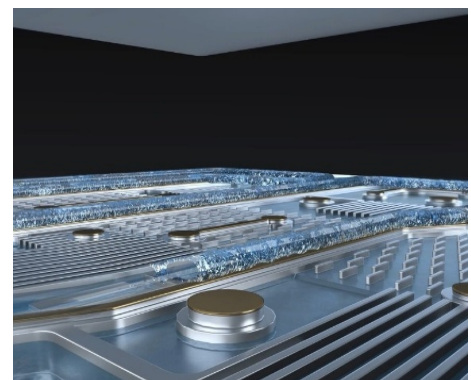


트렌드 5: 보안과 신뢰성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 충전소에서 더 높은 충전 출력과 더 큰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안과 신뢰성은 충전 네트워크의 기본 요건이 될 것이다. 종합적인 전기 안전 보호 아키텍처는 사람, 차량, 충전기를 전방위로 보호하며,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한다.

트렌드 6: 액체 냉각식 초고속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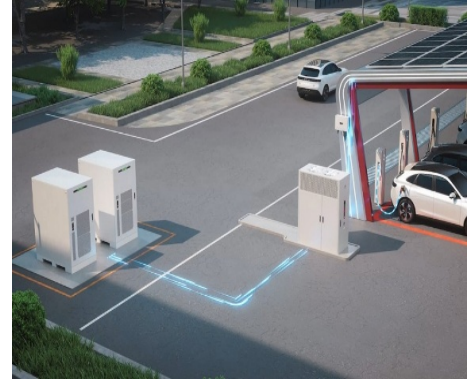
액체 냉각식 초고속 충전은 뛰어난 열 방출 성능과 보호 기능을 제공해 점차 분산되는 충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반면 기존 공랭식 시스템은 고온, 고습, 염무,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향후 액체 냉각 기술은 차량과 충전기에 모두 적용돼 효율적인 메가와트 충전을 가능하게 하고, 차량 전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트렌드 7: 직류(DC) 기반 ESS+충전기

직류 기반 ESS+충전기 시스템은 전력 용량을 효과적으로 확대해 전력망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고객이 초고속 충전소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저용량 충전소 업그레이드에 적합하며, 최소한의 전력망 용량으로 초고속 충전소를 재구성하거나 신규 구축할 수 있어 차량 충전 수요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



트렌드 8: 모듈형 충전소 구축

충전소 단위의 모듈형 솔루션은 시공과 장비 시운전을 고려해 설계돼 다양한 충전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적용된다. 저비용, 신속한 배포, 손쉬운 이전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으며, 견고한 설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가치와 자산 보호를 제공한다.

트렌드 9: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그리드 포밍(grid-forming) 태양광(PV)+ESS 시스템은 액체 냉각 초고속 충전 기술과 결합돼 온그리드(on-grid) 또는 오프그리드(off-grid)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양광+ESS+충전기+차량+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이 구현되며, 전력 용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간대별 요금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트렌드 10: AI 역량 강화

충전 네트워크의 지능형 진화는 네트워크, 충전소, 충전기, 차량 간의 원활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사일로를 해소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의 전반적인 충전 경험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물류 및 운송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화웨이는 앞으로도 파트너들과 협력해 고품질의 매끄러운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하고, 모빌리티 전동화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 중궈일보(中国日报).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고품질 충전 보장 | 화웨이, 2026년 충전 네트워크 산업 10대 트렌드 발표
<https://caijing.chinadaily.com.cn/a/202601/17/WS696b23b2a310942cc499ba73.html>

[기업분석] 리웨이커 AI 안경: 사용자의 '제 2의 두뇌'로 진화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를 빠른 사고(직관적, 자동적)와 느린 사고(이성적, 숙고적)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이 이론은 AI의 인터렉션 기술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웨이커(李未可)의 창립자 루이(茹忆) 대표는 "상호작용 기술의 핵심은 인간의 인지 방식에 맞추는 데 있으며, 안경은 인간의 감각에 가장 가까운 기기인 만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중국 최초로 대형 AI 모델 등록을 완료한 AI 안경 브랜드 '리웨이커'는 멀티모달 인지와 정서적 상호작용, 빠른 응답 역량을 '보고, 듣고, 말하는' 일상적 사용 경험에 통합해, AI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제 2의 두뇌'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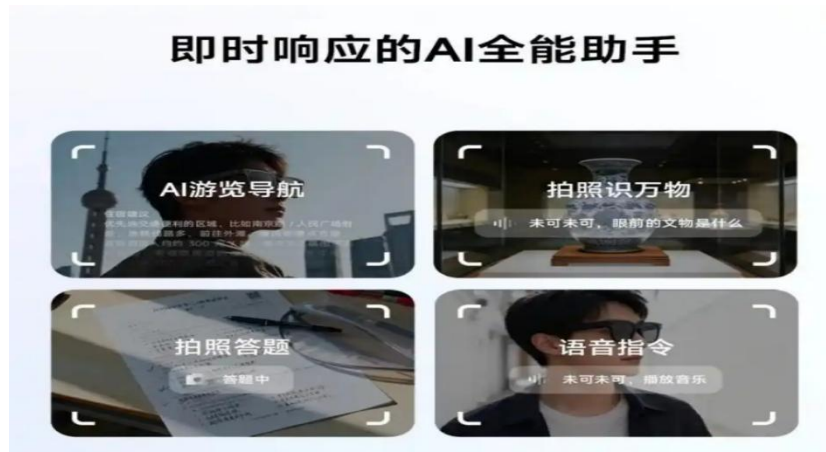
리웨이커의 AI 안경은 실제 현장에서도 폭넓은 활용성을 보여준다. 공항에서는 안내 표지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전사해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공장 설비 점검 과정에서는 기계 안내 문구와 안전 표식을 빠르게 인식하며, 호텔 결제 시에는 외화를 자동 환산해 금액을 확인해준다.

이러한 기능은 전면 업그레이드된 '슈퍼 리웨이커'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이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WAKE-AI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다중 AI 협업 구조를 적용해 주요 AI 모델 20여 개와 지능형 에이전트 70여 개를 과제 난이도에 따라 조합해 활용한다. '빠른 응답'과 '심층 사고'를 상황에 맞게 오가며, 요청 해석부터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처리한다.



고속 응답 기반의 상시 활용형 AI 어시스턴트

일반적인 '인간-기계 상호작용 모드'에서 WAKE-AI 대형 모델은 상시 활용 가능한 지능형 기능을 제공한다. 음성 인터랙션을 통해 손을 쓰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어, 다른 작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 확인, 간단한 메모, 실시간 번역 등 기능을 즉각 처리하며, 일상과 업무, 학습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 핵심은 고효율 인지-의사결정-실행 체계를 구축한 데 있다.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 알고리즘 기반의 소음 제거 기술과 ENC 기술을 결합하고, 다중 마이크 배열과 빔포밍(Beamforming) 지향성 강화 기술을 적용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밀리초 단위의 음성 호출 및 인식을 구현했다. 의도 이해 단계에서는 WAKE-AI 모델이 입력된 명령을 분석해 날씨 조회, 뉴스 정보, LBS 서비스, 멀티모달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요청을 분류하고, 관련 서비스 모듈을 연동해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100 밀리초 이내에 완료된다.

심층 사고 기반 '초고성능 협업형 AI 전문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심층적인 사고나 창의적 생성, 복잡한 실행이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시스템은 '초고성능 협업형 AI 전문가'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이 모드는 차세대 다중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딥시크(DeepSeek), 통이첸원(通义千问, Qwen), 원신이옌(文心一言, Ernie Bot) 등 20여 개의 주요 대형 모델과 70여 개의 전문 AI 에이전트를 통합해 운용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 호출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론, 동적 실행 및 지속적인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는 리웨이커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온 다중 에이전트(MultiAgents)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명절 분위기에 맞는 비주얼 컨셉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자가 코드 최적화를 요구하면 개선안과 함께 행 단위의 설명을 제공받는다. 마케팅 담당자는 데이터 수집, 경쟁사 분석, 문화적 적합성이 반영된 완성도 높은 전략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리웨이커가 구축한 PPDAF 순환 프레임워크(인지-계획-의사결정-실행-피드백)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마치 '가상의 팀'을 운영듯 과제를 완성하는 구조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리웨이커는 다양한 활용 환경에 적용 가능한 AI 번역 체계를 구축했다. 전 세계 128개 언어 및 방언 간 실시간 상호 번역을 지원하며, 동시 통역, 음성 번역, 사진 번역, 오프라인 번역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국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 문맥 복원, 문화적 맥락 대응 등 특화 기능을 함께 활용해 정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 소통에 필요한 뉘앙스를 살린 번역을 구현한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다양한 언어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바탕으로, 리웨이커 AI 스마트 안경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낮추는 지원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리웨이커는 자체적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5월에는 WAKE-AI 2.0 아키텍처와 외부 지능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연



동될 수 있는 '에이전트 광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또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MS 클라우드 등과 함께 '스마트 안경 생태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AI 안경의 발전 방향을 단순한 하드웨어 혁신에서 활용 환경 중심의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다.

리웨이크는 AI 안경을 사용자의 '제 2의 두뇌'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보조 디바이스를 넘어 기억과 인지를 확장하고, 다양한 활용 환경을 연결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창립자 루이(茹忆) 대표는 "AI 안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전의 출발점은 기술을 본질로 되돌리는 데 있으며, 인간의 감각과 이해, 창의성을 확장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참고자료

- ◆ 신원천보(新闻晨报) 리웨이크 AI 안경: 사용자의 '제 2의 두뇌' - 번역, 계획 수립, 코딩까지 가능
<https://baijiahao.baidu.com/s?id=1854439424472820467&wfr=spider&for=pc>

[정책분석] 중국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 발표

2026년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새롭게 개정된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 (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办法)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혁신 역량 부족 등 도전에 직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고도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리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

새롭게 개정된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은 범위 확대, 기준 상향, 운영 메커니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고품질 성장을 견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 육성 범위 확대, 새로운 단계별 체계 마련

개정된 <관리방법>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처음으로 육성 체계에 포함시키고, '피라미드형' 3단계 육성 구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 설립 초기부터 비교적 높은 전문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었다. 기업 규모는 크기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며, 향후 우수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예비군으로 평가된다.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중간 핵심 단계로, 전문화, 정밀화, 차별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춘 기업들이다. 특정 세부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전정특신 '소거인(小巨人)' 기업: 최상위 선도 역량으로, 산업 기반의 핵심 영역과 공급망의 핵심 단계를 담당한다. 핵심 기술과 높은 시장 점유율, 우수한 품질과 높은 수익성을 갖춘 기업들로, 산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 평가 기준 강화, 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정량 기준 강화: 매출, 연구개발 투자, 지식재산권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전정특신(专精特新) '소거인(小巨人)' 기업의 경우, 연 매출 기준을 5,000 만 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최근 2 년간 연구개발비 총액을 1,200 만 위안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1 유형 지식재산권을 4 건 이상 보유하도록 해, 기업의 혁신 투자 확대와 성과 전환 역량 강화를 유도했다.

종합 평가 체계 도입: '전정특신 발전 품질 평가 점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전문화, 정밀화, 차별화 수준은 물론 혁신 역량과 성장성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50 점 이상,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은 60 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규모 확대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육성 메커니즘 정비, 서비스·관리 역량 강화

능동적 발굴 체계 구축: 산업체인, 지분 투자,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포상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잠재력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육성 체계에 보다 폭 넓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중소기업 발굴 루트를 더욱 확장시킨다.

'무작위' 심사 제도 도입: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심사 과제 역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전문가팀에 일정 비율의 산업 및 재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기업 부담 경감: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 기업이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재심사 대상 기업은 기존에 부여 받은 최고 등급 기준에 따라 재심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재심사, 사명 변경, 지역 간 이전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급 중소기업 담당 부처와 관련 지원 기관은 기업에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제 3 자 중개기관에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부당한 중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제도 참여와 성장 환경을 개선한다.

■ 개정 전후 비교로 살펴본 제도 변화

새롭게 개정된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은 기존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의 정밀도를 높였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선정 기준: 세부 분야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직접 출원한 것이어야 하며, 순위 3위 내에 포함될 것을 요구해 기술의 자주성과 질적 수준을 함께 강화한다. 아울러 각 성(省)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왔던 '차별화' 지표(15 점)를 폐지하고,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육성 범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처음으로 육성 대상에 포함하고, '과학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전정특신 중소기업-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으로 이어지는 3 단계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의 예비 풀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 초기 고성장 잠재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전반에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관리 메커니즘: 선제적 발굴 체계를 도입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 우수 기업을 정밀하게 발굴하고, 전문가 및 과제 무작위 배정 심사를 통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평가 점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 쿼터를 제한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병행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향과 품질 평가 강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과 제품 품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규모 확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제조기업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했다. 그 결과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높아졌고, 최종적으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육성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보다 폭넓은 정책 지원을 받게 됐고, 이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기술형 중소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빠르게 진행하며 세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신뢰와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신규 제도 속에서 찾는 기업 성장의 돌파구

■ 제도 기준에 기반한 성장 방향 재정립

개정된 관리방법은 기업에 명확한 성장 단계 체계와 발전 지침을 제시한다. 이에따라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기반으로 현재의 전략을 점검하고, 맞춤형 보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업계 평균에 부합하는지, 핵심 기술과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한 경우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세부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전정특신 중소기업: 전문화, 정밀화, 차별화와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세부 시장에서의 집중도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경영 관리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운영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 선진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과 효율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 혁신 역량과 핵심 기술 확보 수준, 시장 점유율, 수익성과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산업 기반의 핵심 영역과 공급망의 주요 단계에서 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 확장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경우 정밀한 시장 분석과 전략 조정을 통해 중국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정책 기회를 통한 지원 확보

정책적 지원은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기업은 전담 인력을 지정해 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고와 신청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요건에 맞춰 검증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청 단계에서는 혁신 성과와 시장 경쟁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차별점을 부각시켜 선정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전정특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세제 감면과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와 첨단기술기업 세제 혜택을 적용 받아 매년 상당한 세금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은 추가 연구개발과 시장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의 '녹색 통로'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유리한 조건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조성한 전용 펀드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과 정책성 펀드를 활용해 기술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정책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금의 사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고도화, 인재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 환경을 기회로 삼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고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제도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확대

개정된 관리방안은 중소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개정된 관리방안에 담긴 정책 신호: 국가는 중소기업이 '전정특신'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확고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별 육성 체계를 통해 초기 단계 기업이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신규 제도는 중소기업이 혁신과 핵심 기술, 성장의 완성도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 및 혁신형 기업은 정책 지원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해 산업 혁신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고, 전정특신 기업은 전문화, 정밀화, 차별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은 산업체인의 핵심 단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전반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신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기술 혁신 역량 부족, 시장 확장 제약 등 문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성장 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혁신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대거 등장해 산업 고도화와 고용 창출, 국가 혁신 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소기업 역시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역량을 보완하고, 과감한 혁신과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질적인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참고자료

- ◆ 장선생 디지털 지능화에 대해 이야기(蒋先生聊数字化智能化). 고품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의 2026년 개정안은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https://baijiahao.baidu.com/s?id=1854634250499638928&wfr=spider&for=pc>

KIC 뉴스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한중 신에너지차 협력의 새로운 좌표	25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 대 도시군』 발간	27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29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0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한중 신에너지차 협력의 새로운 좌표

김종문 ·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2026년 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에 질적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산업 협력 분야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에너지차(NEV) 산업은 양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지능화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전환점,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개방

2025년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은 역사적인 전환을 맞았다. 전 세계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으며, 중국은 소매 침투율이 11월 기준 59.3%에 달하며 연간 1,600만 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의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이 맞물려 신에너지차 대중화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신에너지차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이제 '시험적 진출'이 아닌 '본격적 경쟁 참여'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비야디(BYD)와 지커(Zeekr)가 잇따라 시장에 진입했고, 샤오펑 모터스(Xpeng)도 진출을 준비 중이다. 과거와 달리 이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숙한 산업 체계와 대규모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기술, 지능화 수준, 소프트웨어 경험 등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정면 승부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상호 보완적 구조의 발견

중국 기업의 진출이 한국 시장에 위협이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양국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동력 전지 분야에서 중국은 소재·셀·시스템 통합(SI)에 이르는 완성된 산업망과 원가 관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하이엔드 배터리 소재,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글로벌 완성차 협력 경험에서 강점을 지닌다. 특히 한국은 하이니켈 양극재, 분리막, 차량용 반도체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와 비용 최적화를 위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기술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중국은 실제 주행 환경 기반의 응용력, 알고리즘 업데이트 속도, 스마트 기기 생태계 연계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차량용 통신 모듈, 정보 보안, 인간-차량 인터페이스(HMI) 설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에너지 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에서 한국은 축적된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열관리 기술에서 앞서는 반면, 중국은 데이터 기반 최적화와 플랫폼화 개발에서 유연성을 보인다.

'기회의 창'을 통해 본 협력의 로드맵

2026년 한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정책을 '시장 규모 확대'에서 '산업의 질적 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전환하고 있다. 전국 단위 충전 인프라 확충, 특히 800V 고전압 급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 시범 사업 확대, 기업 참여형 기술 표준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양국 협력에 있어 최적의 '기회의 창'이다. 중국은 대규모 상용화 경험을, 한국은 정밀 제조와 소재 기술, 시스템 안전성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판매 경쟁을 넘어 핵심 부품 공동 개발, 현지화 부품 공급, SDV 구현을 위한 공동 테스트 및 플랫폼 구축 등 세분화된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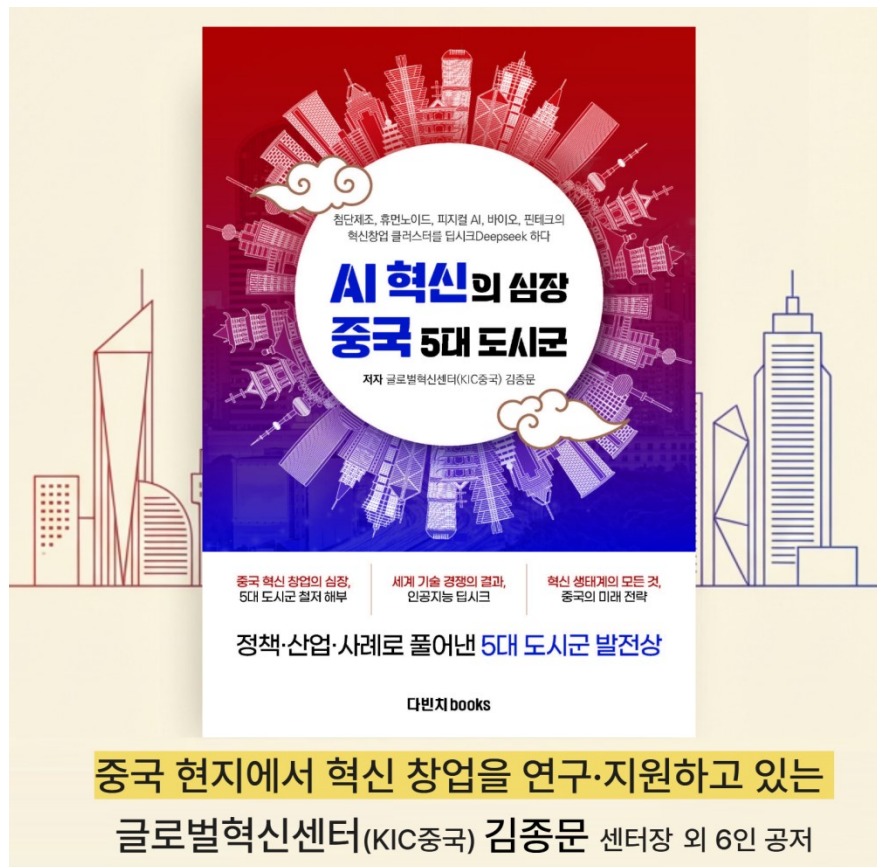
미래를 향한 제언

향후 5~10년간 한중 신에너지차 관계는 '병행 발전'에서 '구조적 상호 작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단일 시장 진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체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시장 구도를 '국내 중심'에서 '다원적 경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술 표준 수립, 공급망 분업, 지역별 시장 전략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양국이 경쟁 속에서 협력의 규칙을 만들어 간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산업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에너지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국가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협력'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2026년,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하는 새로운 대화의 창을 통해, 한중 양국은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발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2026년을 맞아 한국 기술 기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간 기술·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의 일환으로,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는 중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5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 정책 환경, 주요 기술 트렌드,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실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시장 개요를 넘어, 실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산업 정보를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바이두, 도우인, 화웨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 사례와 기술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이 속한 도시군의 산업적 강점과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금융·투자 환경, 세제 지원 제도 등 첨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폭넓게 다뤘, 중국 AI 시장의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전반에는 베이징 현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가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최신 데이터가 반영돼 현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진출 전략과 협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이번 발간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한·중 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산업 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KIC 글로벌혁신센터
 CHINA·Korea Innovation Center


中关村科学城公司
 ZGC SCIENCE CITY LTD.

2026 KIC중국 창업대회

12대 국가전략기술

2026.04.15 CHINA·BEIJING

주최/주관기관


 KIC 글로벌혁신센터
 CHINA·Korea Innovation Center


 한국무역진흥공사
 KOTRA


 ETRI

후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NRF 한국연구재단

참가신청 2025년 12월 30일(화)~2026년 2월 23일(월)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info@kicchina.org



장소 베이징 ·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전시센터 2층 원명홀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展示中心2楼 圆明厅)

대회일정

02.24 - 02.27 1차 서류 심사 (27일 서류 심사 결과 통보)

03.03 - 03.06 2차 면접(온라인 심사) (6일 온라인 심사 결과 통보)

03.09 - 03.20 결승진출자(팀) 멘토링 (창업계획서 작성, 중국진출전략, 발표방법 등 1:1 멘토링)

26년 04월 15일
 2026년 <KIC중국 창업대회> 결승전 개최
 (기업당 10min발표+5min Q&A) 대회언어: 한중동시통역

26년 04월 16일
 중관촌 과학성 산업 시찰 및 방문 교류회

지원혜택

1. 수상자 상금 외 기업 1인에 한해 왕복 티켓 및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제공
2. 한중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3. 중관촌포럼, 푸장혁신포럼, 대만구과학포럼, 중국공신부 창업대회, 중관촌 창업대회, HICOOL글로벌 창업대회, 골든팬더 창업대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결승진출 전 1:1 멘토링 지원 등
(세부 지원사항 QR코드 스캔하여 확인 바람)

협력기관


 한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ACM 2026 인공지능 및 진화 알고리즘,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소셜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	2026.01.30-2026.02.01	산야	인공지능
제 7 회 빅데이터 및 정보기술 교육 국제 컨퍼런스(ICBDIE2026)	2026.02.06-2026.02.08	베이징	전자정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ICADS2026)	2026.02.06-2026.02.08	쿤밍	인공지능
인공지능 및 제어 국제 학술대회(CAIC2026)	2026.02.06-2026.02.08	산야	인공지능
국제 항공우주, 지능형 센싱 및 제어 컨퍼런스(AIPC2026)	2026.02.06-2026.02.08	쿤밍	항공우주
제 2 회 인공지능 및 제품 디자인 국제 컨퍼런스(AIPD2026)	2026.02.06-2026.02.08	베이징	인공지능
제 3 회 자율주행 및 지능형 센싱 기술 국제 컨퍼런스(ADIST2026)	2026.02.06-2026.02.08	우한	인공지능
감지, 제어 및 의사결정 지능 국제 컨퍼런스(PCDI2026)	2026.02.06-2026.02.08	다리	인공지능
제 2 회 디지털 경영 및 정보 기술 국제 컨퍼런스(DMIT2026)	2026.02.06-2026.02.08	베이징	전자정보
제 6 회 국제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및 소프트웨어 공학 컨퍼런스(CNSSE2026)	2026.02.06-2026.02.08	칭다오	전자정보
2026 년 스마트 자동차 및 기계 공학 국제 컨퍼런스(IVME2026)	2026.02.06-2026.02.08	칭다오	자동차
제 2 회 생성형 인공지능 및 디지털 미디어 국제 컨퍼런스(GADM2026)	2026.02.06-2026.02.08	쿤밍	인공지능
제 2 회 빅데이터, 통신 기술 및 컴퓨터 응용 국제 컨퍼런스(BDCTA2026)	2026.02.06-2026.02.08	하얼빈	전자정보
제 6 회 국제 환경자원 및 에너지공학 학술대회(ICEREE2026)	2026.02.06-2026.02.08	광저우	에너지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